아태연구 제16권 제2호
2009년 12월 30일 pp.223~239

『녹파잡기』 속 경화세족과 어울리던 평양명기들의 풍속연구

조 상 준
건국대·경기대 한국학부

< 목 차 >

Ⅰ. 머리말
Ⅱ. 녹파잡기에 나타난 기생풍속
Ⅲ. 녹파잡기의 의의
Ⅳ. 맺는말

Key words(중심용어) : 녹파잡기(Noak-pah-job-gi), 남성작가의 사실적 시각(Realistic View of a Male Writer), 기생풍속(Gisaeng's Custom), 평양기생(Pyungyang Gisaeng), 기생들의 생활사(Gisaengs' Lives)

국 문 요 약

이 연구는 주로『녹파잡기』에서 표현된 산문체를 통해서 19세기 기생의 문화적 역사에 대한 의도를 초점을 두고 있다. 『녹파잡기』는 개성의 명문가 집안 출신이자, 인정을 받지 못한 작가인 한재록에 의해 쓰여 졌다. 그는 최전방 주위를 배회하면서, 스스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그 스스로가 평양 기생에 대한 문화적 문학을 썼다.『녹파잡기』는 여성들의 실존하는 사회적 구조로부터 고립된 기생들을 대한 매우 긍정적인 인식의 영역이라는 흥미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기생들이 텅 빈 말을 하는 것을 다재다능한 예능인이 실속 있는 말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인식에서 시작된 새로운 변화이다.

『녹파잡기』는 그 당시 관습적인 기생의 사회와 기방문화를 보여주는 문학이다. 그동안 이녕화 이외에 기생들의 역사를 체계화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녹파잡기』가 지금까지 발견된 작품들 중에서 홍등가에 있는 기생의 생생한 일상에 대한 뛰어난 서정적 묘사를 보여준 최초의 경우라 하겠다. 한재록은 녹파잡기를 통해 기방문화로의 빛나는 외관을 벗기고, 서로서로 연결된 개인적인 시에 습관적인 관심을 갖는다. 그는 또한 기방 내면의 슬픔과 답답한 마음의 아름다움을 과감하게 밝은 시야에서 포착하였다. 이는 다른 각도에서 좀 더 성숙한 공감대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녹파잡기는, 그것이 남자작가의 현실적인 좁은 시야에 한계가 있음도 지적할 수 있다. 반면에, 작가의 시선이 현실의 공간 창조에 의해 훌륭한 문

www.kci.go.kr

학 작품을 유발 할 수 있음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 왕조와 근대 기생의 관습의 역사 사이의 위치를 보여주고, 중간 전달자의 의미를 포함하거나 또는 근대 기생의 문화를 통해 문학 작품의 의미와 조선 후기의 모습을 보인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게다가, 이 작품은 한국 문학과 중국 문학의 역사를 통해서 19세기 서정 문학 연구에 관한 중요한 통찰력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 기대된다.

Ⅰ. 머리말

한문학계의 19세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잃어버리려 했던 시대의 역사에 대한 반성으로 새로운 문헌의 발굴 작업과 함께 그 시대를 살다간 중요한 문인과 학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와 동시에 기생세계에 대한 중요저술서인 『녹파잡기』의 발굴과 번역은 이 시기의 문학의 치열한 자의식과 수준 높은 성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녹파잡기』는 남성사대부가 자신을 성찰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남성에 의해 작품 밖에서 조망된 구조를 지닌 두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1권에는 기생 66명의 기생들의 간단한 프로필, 외모, 재능, 대화의 내용 등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 2권에는 기방주변의 기생과 관련된 당대명사 5인의 일화까지 실려 있는 사실(fact)이다. 『녹파잡기』는 한문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도 서술자가 남성적 속성을 강하게 내세우기 보다는 기생 하나하나를 시각(vision) 대상으로 응시하여 밝은 광경(sight)으로 포착해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유의 핵심이 첫째, 『예기』로부터 내려온 사안으로 인하여 비하된 시각으로 그려낸 보편적인 기생책들 둘째, 관음증(voyeurism)의 시각으로 응시하는 대상, 셋째, 성적 계급적 편견으로 인해 폄하된 대상으로 응시하는데 비해 『녹파잡기』는 특히 정형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 상관물에 대한 평등가치를 지닌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기생이 조선시대 양반들이 남긴 문집에서 작품 소재로 등장하거나, 야담에 기생이 일으킨 사건이 남아 있는 정도의 자료 즉, 기생에 대해 단편적으로 언급된 기록은 있어도 철저하게 남성시각에서 바라본 서술자가 작중 제 2서술자가 되어 적극적으로 자기를 표현한 것은 『녹파잡기』만의 특색으로 부각되는 부분이다.

『녹파잡기』를 쓴 우천(藕泉) 한재락(韓在洛)은 개성 명문가 출신으로 자하(紫霞) 신위(申緯)를 비롯한 서울의 경화세족(京華世族)과 어울리며 창작활동을 한 시인이다. 개성의 자연과 사적 등을 기록한 『고려고도징(高麗古都徵)』을 쓴 정조·순조 연간의 저명한 학자 한재렴(韓在濂 1775-1818)이 그의 친형이다. 한재락은 형제들과 달리 과거에도 급제하지 못하고 늙도록 관계에 진출하지 못한 실의의 지식인이었다. 일찍이 출세하려는 생각을 버린 그는 자신이 직접 만난 평양 기생 66인의 삶과 사랑을 문학적이면서도 사실적으로 풀어냈다. 『녹파잡기』는 기생풍속에 대한 사회학으로서 실제상황에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을 경험하고, 관찰하고, 이해하고, 묘사하고, 분석한 소품 문학서이다. 한재락은 기생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매일 어떤 일을 경험 하는지, 그 어느 날의 경험에서 느끼게 되는 그녀들의 인식, 느낌, 사상, 신념, 가치, 도덕 속에서 발견되는 의미에 관심을 갖었다.

www.kci.go.kr

『녹파잡기』는 소재가 독특한 문학서이다. 간혹 속물근성을 가진 기생들도 등장하지만, 그가 기록한 기생들은 대부분 인간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 기생에게 연민을 느끼게 되는 것이 소품문학서 『녹파잡기』의 매력이자 한재락 문장의 매력이다. 『녹파잡기』는 기생의 꿈과 이상에 연결된 자아가 실현되는 양상에 초점이 맞춘 것이 특징이다. 북학(北學)을 추종하여 경화세족 시인들과 친교를 맺고 있던 한재락은 신위(申緯)를 중심으로 한 문사그룹인 '시사(詩社)'에 참여하여 열열이 신예의 학문과 문학을 전개하던 시인이 한편의 수채화처럼 간결하게 미학적 특징을 중시하여 묘사한 작품이다. 시인으로 문사로 유명인들과의 교류를 나누던 그에게 기생의 생활을 글로 묘사한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 관계를 입증하듯이 신위의 시집에는 한재락의 모습이 투영된 작품이 제시되어 있다.

藕泉霽翁之賢弟 藕泉作詩師法尊
藕泉謂我霽翁友 時時在酒過山門
髓卬韓杜味騰騰永 袖來蘇白香濃熏
淡而不枯質不野 可以上溯陶徵君

藕泉은 제원의 어진 아우라
우천이 짓는 시는 모범도 높다
우천은 나를 제원의 벗이라 여겨
때때로 술을 들고 내 우거를 찾아오네.
소매속에 소식과 백거이 넣어오니 향내도 짙다.
담박하나 마르지 않고 질박하나 촌스럽지 않음이
시대를 거슬러 도연명의 수준에 오르네. (신위 2006, 424-526; 안대회 2006, 281-282 재인용)

한재락 그는 세련된 문화의 향유자로서 신위의 추종자들이 견지하던 시풍 즉 백거이, 두보, 한유 풍을 좋아하는 취향의 소유자이며 그의 문학적 성취도는 도연명에 준한다고 암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1830년 신위가 귀양지에서 『녹파잡기』를 보고 지은 다음의 시에서는 한재락과 재회의 기쁨도 곁들여 있다.

紅粉殢人忘髮白 烏巾入洛抗塵黃
琉璃境悟昤山色 彈子過經拾海光

기생들에 푹 빠져서 백발도 잊어버리고
오건 쓰고 영남을 떠도니 누런 먼지 막아주네
유리같은 시경(詩境)을 알아 산빛을 읊고
조약돌 많은 물가 지나며 해광(海光)을 주워왔네 (신위 2006, 781-782).

위의 시는 한재락이 늦은 나이까지 과거와는 담을 쌓은 채 문사들과 여러 지방을 여행하고 각 지방의 기방세계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였기에 『녹파잡기』를 쓰는데 어떤 장애도 느낄 것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실을 안 신위는 한편의 시로 『녹파잡기』를 쓴 한재락을 형상화한 것이다. 기생를 바라보는 남성저자 한재락의 시각 또한 어디에 정주할 의무감이 있는 것도

www.kci.go.kr

아니어서, 기생사회의 풍속이나 풍류 그리고 인간관계를 표출하는데 어떤 장애나 자의식은 없었던 듯하다. 차츰 나이가 들어갈수록 싱싱하고 품격 있는 기생들의 공간에 들어 그녀들의 생활사를 기록함으로써 실의의 정서가 증폭되는 동질감을 억누르는 효과를 본 것으로 추론된다.

그간 여러 방향 에서 조명되어 온 즉, 시나 설화 소설 속에 등장하는 기생의 섹슈얼리티(sexuality)에(서지영 2007). 주목한 연구나 자의식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남성 작가가『춘향전』을 수용하고 향유한 방식을 추적한 논의(진은진 2006, 76). 등 적지 않은 연구 성과가 보고되었다. 19세기의 방대한 양의 애정시조작가인 이세보(李世輔. 1832-1895)의 경우(이동연 2003, 131).나 남성 작 애정가사인『금루사』처럼 화려한 색채를 겸한 시각적 이미지로 묘사된 기생들은 남성시각에 투영된 관념화된 하나의 사물(事物)로 풍류객으로서 벌인 시정풍류의 소산이었다. 이에 비해『녹파잡기』를 기록하는 한재락은 풍류객으로서의 남성적 시각의 범위와 향유 결정(結晶)의 순간을 넘어선 문학작품으로서도 보기 드문 성취도를 보여준다.

당시 평양의 명기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용모나 인상, 기방문화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사료이다. 또한 소품서로서의 특색이 잘 드러나는 작품으로서 지니는 가치도 무엇보다 큰『녹파잡기』는 생활사 자료로서도 매우 중요한 문건으로 손색없다. 사대부가『녹파잡기』같은 기생풍속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이 책의 서술방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 짧은 인상기 위주의 글 곳곳에는 경문세족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페르소나(persona)를 벗어버린, 한 인간으로서 기생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녹파잡기』한 권에 오롯이 담아낸 사회적 존재인 평양 기생들의 다양한 인생편력과 뛰어난 기예와 의로움과 문학적 개성을 중심으로 사회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그 시대의 기생 풍속(風俗)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녹파잡기에 나타난 기생풍속

19세기는 전통과 현대 양쪽으로부터 소외되어온 시대다. “이런 유의 서적이 선비임을 표방하는 사람에 의해 쓰이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조선사회이다. 한두 편의 기생을 다룬 글이나 시가 희작(戱作)이라는 이름으로 또한, 선비와 기생의 사랑을 다룬 전(專)이 한두 편 문사들에 의해 쓰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나의 저작을 남긴 사례를 아직 보지 못했다(안대회 2006, 301).” 기생의 역사를 체계를 잡아 정리한 것은 역사학자이자 민속학자였던 이능화(1869~1943)의『조선해어화사』가 유일하다. 이『녹파잡기』는 그 책에도 실려 있지 않은 희귀한 자료로써 이 책이 소품서로서의 문체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결한 서사체문장으로 십여 명의 기생묘사는 단 한 줄짜리 짧은 문장으로 그친다. 둘째는 서정적인 주관적 문체로 서술하였다. 셋째는 전형적 방식에서 벗어나 기생의 인상과 자태, 에피소드를 부각 묘사한 것이다. 또한 이 책은 단순한 원서의 번역본이 아닌 평양 기생과 관련한 각종 이미지 자료를 모아 편집한 평양 기생에 관한 자료집인 동시에 문학서이다.『녹파잡기』에 나타난 기생풍속은 기생문학의 형성과정과 조건에 대한 탐색인 동시에 한국문화 연구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표지이기도 하다.

www.kci.go.kr

속(the profane)의 영역으로서의 성 정체성(sexual orientation)과 특수한 계급(class)이라는 이중적 차원의 억압을 경험하는 기생들은 차이가 차별을 낳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차이를 규정하는 것이라는 걸 직접 체험한 소외된 집단이다. 지배적 인식과 박해에 기생들은 두 가지 정서를 내면화하였다. 자기들이야말로 가장 고고하고, 재능 있으며, 향기로운 철학자라는 사고와 함께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이라고 생각하는 비극적 세계관이 그것이다. 이는 기생집단을 마땅한 존재로 각인시켜서 조선조의 가부장권을 더욱 공고히 보전하려는 장치(devices)이기도 하다. 상대방의도는 무시된 채 남성의 관점으로만 지시하는 대상 즉, 여성으로서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이 경청되지 않았던 소통 공간 부재의 여염집 여성들에 비해 그나마 기생들은 직업에 매몰되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를 흡수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내는 열린 소통의 공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야말로 철학을 말할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 그리하여 풍류공간에서 자신의 마음과 사상을 알아주는 사대부를 만난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행운으로 여기게 되었다.

1. 일편단심의 사랑

냉혹한 현실 속에 굳건히 정박하고 있는 기생들의 삶속에 사랑은 빼놓을 수 없는 중심축이 되었다. 기생들의 사랑은 그동안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신격화된 점이 있다. 사랑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면 그 사랑은 거짓이고, 상대방에 대한 기만이라고까지 여긴 양상들은 기생문학의 창작에도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그런 사랑의 정형이 그대로 드러난 조선시대 기생문학뿐만 아니라 당대 기생에게도 신분에 상관없이 외모를 꾸미고 여성성(femininity)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용인되기에 이르렀다. 여성성의 원형인 상대방에 대한 배려, 헌신, 보살핌을 기생들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인 건 당연한 결과였으며 화려한 비단과 큰 머리, 각종 비녀, 삼작노리개 등 사대부 여성 못지않게 사치가 허용되었다. 상류여성들과 혼동되지 않도록 삼회장 겹치마는 입을 수 없었으나 반회장 홑치마와 저고리는 허용되던 시대였다. 조선후기로 내려올수록 가부장 제도가 더욱 엄격하게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복식은 여성 상체의 곡선이 드러나도록 저고리의 “깃, 섶, 끝동, 고대 등 모두 좁아졌다. 반대로 하체는 풍성하게 보이는 상박하후(上薄下厚)실루엣이 등장했다.

사대부 남성의 복식이 중인과 그 이하계급으로 하향 전파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성복식은 사대부가 여성들이 기생들의 복식을 모방하여 상향 전파되는 양상을 보인다.

당시 혜원 김홍도의 풍속도는 주로 서민층과 기생들을 취급하고 있는데, 그의 유명한 ‘미인도(간송미술관 소장)’를(김영덕 1972, 191). 보면 계급과 관계없이 저고리형태가 같았던 그 시대의 복식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재락의『녹파잡기』에서는 미세하게 표현된 복식에 대한 논의는 없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연회에서 대금과 피리나 가야금으로 영곡(郢曲)을 연주한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화창(和昌)하거나, 동자에게 청상세엽(淸上細葉)을 연주하라 시키고, 일어나 너울너울 춤을 추거나, 석류꽃 아래 자리를 깔고 앉아 술을 돌린다. 그러면서 운자를 나누어 시(詩)를 짓는 풍경은 뛰어

www.kci.go.kr

나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한재락의 담박한 취향 탓이 아닐까 추론되어진다.

> 열한 살 때 소윤의 성밟기 놀이에 따라갔다. 그때 새로 내린 비에 길은 진흙투성이였고, 초제(楚娣)는 뾰족한 신발이 작아 발을 찔린 듯 아파했다. 성가퀴에 기대어 어쩔 줄 몰라하고 있는데, 어떤 댕기머리 동자가 지나다가 왜 그런지 물었다. 그녀가 사실대로 말하자 동자는 곧 청사(靑絲)가 죽신을 벗어주고 자기는 맨발로 갔다. 해가 저물기 전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손수 청사 가죽신을 잘 싸고는, 동자의 이름을 알아내 종이에 써서 갈무리 해 두었다. 그녀의 어미가 묻자 대답하였다. "오늘 가던 길에 이 가죽신이 아니었으면 약속시간에 대지 못해서 관아에 지은 죄가 가볍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평소 모르는 사람인데도 남의 급한 일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보니 사람됨을 알만합니다. 제가 비록 어리지만 처녀의 몸으로 남의 신발을 받아 일단 제 발에 신었으니 의리상 잊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여자의 행실로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른 날 인연을 얻게 된다면 아마도 이것 때문이었겠지요. (『녹파잡기』1권, 128-129)

냉혹한 현실 속에 굳건히 정박하고 있는 기생들의 삶속에 사랑은 빼놓을 수 없는 중심축, 로즈버드(rose bud)[1] 이다. 한 사건을 이해하는데 디테일들을 제외하거나 빠뜨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바로 그 디테일들 속에서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하물며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평생에 걸친 삶에 대한 이해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 종종 여백으로 추방당한 그 사소한 부분에서 한 운명에 대해 서사시보다 더 심오한 의미를 한재락은 찾아냈던 것이다. 그의 실험은 때로는 놀랍고 때로는 가슴 아프게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면서 점점 그 인물들의 매력에 빠져들게 만든다.

열한 살의 어린기생 초제(楚娣)가 아홉 살 난 괴불에게 바친 첫 사랑의 로즈버드는 청사(靑絲) 가죽신이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손수 청사가죽신을 잘 싸고는, 동자의 이름을 알아내 종이에 써서 갈무리해두었다." 이것은 평양기생의 신의를 아낌없이 보여주는 광경이다. 덕천기생 초운(楚雲)이 열다섯에 대산선생(오창렬)을 만나 시를 받고 그를 사모해서 다른 손님은 일체 거절하고 우울하게 지낸다. 그가 평양에 머문다는 소식을 듣고는 평양소속으로 옮겨 가슴속에 품고 지내던 보풀이가 난 시고를 오창렬에게 보여주었다는 이야기에서 로즈버드는 보풀이가 난 시고다. 이 또한 계산을 초월한 사랑의 단면을 보여준다.

> 한창때에는 박자를 맞추느라 비녀를 부러뜨리고 술을 따르느라 치마를 더럽혔으며, 몸은 비단옷에 물리고 입은 맛있는 음식에 싫증이 났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남편을 따르게 되자, 집이 가난하여 베로 만든 치마를 두르고 싸리나무 가지로 쪽을 찌게 되었다. 몸소 물 긷고 방아를 찧었으나 끝내 괴로워하거나 한스러워 하지 않았다. (녹파잡기 1권, 89)

기생으로 이름을 날리다가도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면 여염집 여자같이 들어 앉아 집안 살림에 힘쓰는 기생이 많았는데 초염(初豔)이 대표적인 경우다. 불안을 견디고 불안전함을 받아들

1) 장미꽃 봉오리'를 의미하는 '로즈버드'는 <시민 케인>이라는 영화에서 비롯된 은유적 표현이다. 한 사람의 인생을 관통하는 놀라운 진실을 품고 있는 사소한 것, 한 사람의 본질을 폭로하면서 그간의 편견과 인식을 배반하는 작지만 위대한 디테일, 그것이 바로 로즈버드다. '로즈버드'는 한 벌의 옷일 수도 있고, 하나의 물건 또는 몸짓일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술작품, 또는 마들렌 과자, 또는 어떤 자취나 흔적일 수도 있다. 때로는 그저 어떤 책의 한 페이지 혹은 한 낱말일 수도 있다.

이는 용기가 모든 것의 시작이다. 이를 라깡 (Lacan, Jacques. 1901-1981) 의 정신분석학 언어로 바꾸자면 초염은 상상계를 넘어 상징계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스트레스 없는 사랑을 원하는 상상계적인 사람들과는 달리 차앵(次鶯)은 “베로 만든 치마를 두르고 싸리나무 가지로 쪽을 찌고 몸소 물 긷고 방아를 찧는” 상징계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강한 기생이다. 그런 기생들은 직접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며 진정한 사랑을 하길 원한다. 라깡이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라고 이름붙인 영역들은 이처럼 삶속에 뒤섞여 사랑에, 일상에 개입하는 운명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김공옥(金孔玉)이라는 문사가 나에게 상세하게 이야기해주었다. 시집가기 전에 만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라는 한재락의 글로 보아 출세의 꿈을 버렸던 서술자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기생의 삶과 예술에 대해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낀 듯하다. 그리하여 『녹파잡기』를 기록하는 내내 차앵(次鶯)과 비슷한 면모를 지닌 기생들에게 연민의 감정과 함께 그녀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는데 한층 더 노력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 인생은 달리는 말과 아침안개처럼 빨리 흘러가지. 내가 양반집 태생도 아니면서 일부종사하는 정숙한 여인의 도리를 본받으려 하니, 갑자기 울적하게 봄날을 슬퍼하며 평생을 묻어버리고 싶은, 다만 겪는 사람은 많아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기다리는 것뿐이야. 내 평소 마음에 차는 사람을 만나면 원헌(原憲)처럼 가난하더라도 내 일생을 맡길 테야. (『녹파잡기』 1권, 86)

위와 같은 상징계적인 글들은 대부분 그녀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가꾸고, 바꾸어, 특정한 모습이 되도록 부추길 뿐만 아니라 개인 속의 특별함과 아름다움을 포착해내어 독자들의 시선이 미치지 못했던 곳으로 데리고 가는 재주가 있다.

라깡의 정신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또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라깡의 주체’이론이다. 생활 어딘가에 마음의 기쁨을 펼쳐놓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을 보살피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기생들에게 실제계의 가난은 장애가 아니다.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원헌처럼 한 인격으로 대우해주는 사람만 만난다면 진정한 사랑을 바치겠노라는 난임(蘭任) 또한 물리적인 면보다는 정신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하는 기생이다.

야담이나 설화, 문학작품 속에서는 수단으로서의 남자 고르기가 과장되게 표현되고 있다. 남편선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녹화잡기 89면의 초염(初豔)이나 위 글의 난임(蘭任)이의 말처럼 중년이 지나도록 남편을 못 고르고 있다가 마음에 맞는 남자를 고르면 그만 만족하고 마는 것일까? 봉건사회로부터 소외된 기생들은 비극적 약자로서 자신을 인정해주고 대우해주는 남자를 만나 노후를 의탁하고자 하는 꿈 한 조각을 키우며 산다.

2. 확고한 신념의 사랑

> 나섬은 아름다운 용모가 빼어나고 자존심 세우기를 좋아했다. 잘 생기고 재주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 떨어진 옷차림을 하고 있어도 하루저녁만에 사랑을 약속했다. 만약 비루한 남자가 속 좁게 굴면 구슬꿰미를 수백 개 주어도 돌아보지 않았다. (『녹파잡기』 1권, 65)

www.kci.go.kr

기생에게는 신분에 상관없이 외모를 꾸미고 여성성(femininity)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용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방에서 다른 기예와 함께 몸치장 하는 것을 배운다. 나섬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비루한 남자가 속 좁게 굴면 구슬꿰미를 수백 개 주어도 돌아보지 않는 행동을 거침없이 이행한 것은 화용월태(花容月態) 혹은 절대가인(絶代佳人)이라는 사대부들의 수식어에 흔들리지 않고 끝끝내 소신을 지키는 자아정체성이 확고한 여성이다.

> 제가 기생이 된 것은 운명입니다만, 천성이 뜻을 꺾거나 남에게 굽히질 못합니다. 기생들 속에 묻혀 있으면서도 다른 기생이 문에 기대어 웃음을 파는 꼴을 보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싸늘해지고 꺼리는 기색이 얼굴에 드러납니다. 제 마음에 맞지 않으면 금을 광주리에 담고 구슬을 말로 퍼 가지고 매일 찾아온대도 어떻게 제 뜻을 꺾을 수 있겠어요? (『녹파잡기』 1권, 92)

일지홍(一枝紅)은 세상의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전복시키고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믿는 신비로운 신념을 지닌 기생이다. 성품이 굳세고 곧아 속되지 않고 다른 기생들 보다 훨씬 총명하여 『식보(食譜)』와 『다경(茶經)』, 바둑과 골패에 이르기까지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일지홍은 기생이 된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온갖 금은보화와 감언이설로 유혹하는 유협자의 속된 풍류를 가소롭게 여겼다. 기생들이 천박하게 행동하는 것과 마음에 없는 웃음을 파는 것을 심히 부끄럽게 여기는 실재세계의 무의식을 가진 기생이다. 외양은 기생이나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은 규중처자와 하등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이 작품에 언급된 일지홍과 녹화잡기 65면에 나섬의 모습은 좀 특이한 기생의 경우로 생각된다.

> 시간이 흘러 헤어져서 문을 나서니, 달빛이 서리처럼 하얗다. 공연히 몇 거름 배회하다가 그녀가 손님을 배웅하고 난간에 기대 소동파(蘇東坡)의 「전적벽부(前赤壁賦)」와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죽지사(竹枝詞)」 몇 수를 읊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소리가 한 가닥 향 연기처럼 끊일 듯 끊일 듯 이어졌다. 나도 모르게 홀린 듯 도로 들어가 매화나무 아래에 앉았다. 그녀가 다시 잔을 씻자 어떤 손님이 놀려댔다. “이 아이가 이 술잔을 누구에게 먼저 주는지를 보면 기방에서 제일가는 사람을 정할 수 있을 게야.” 그녀는 미소를 짓더니 마침내 조용히 손을 모으고 낮은 목소리로 내게 권했다. 온 자리의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었다. (『녹파잡기』 1권, 67-68)

위의 글은 경문세족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페르소나(persona)를 벗어버린 한 인간으로서 기생을 바라보는 한재락의 시각을 여실히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술맛이나 연주, 춤 이야기보다 한재락이 기록하고 싶었던 것은 각각의 기생들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색다른 문화적 분위기 묘사가 더 중심적이다. 기생의 삶을 요구하는 주변의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섬양(纖孃)은 정갈한 술상을 앞에 놓고 「전적벽부」와 「죽지사」 몇 수를 읊는다. 손님이 놀려대도 그녀는 억압, 부인, 투사 같은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를 사용하여 자신의 정체성(identity)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 것 같지 않게 다른 공격으로부터 의연하게 자신을 방어한다. 이때 자신 속에 내재되어 있던 충동을 포착하여 결연하게 그녀의 뜻을 펼친다.

> 경패(瓊貝)가 열세살에 스스로 분발하여 말했다. 내 고향이 아무리 큰 도회지라고는 하지만 안목을 넓히지 못하면 결국 촌스럽게 되고 말 테니, 어떻게 한 세상을 압도 할 수 있겠어? 마침내

www.kci.go.kr

> 언니와 함께 서울로 올라가 한 시대의 이름난 기녀들을 맘껏 살펴보고, 장악원(掌樂院)에서 새로 작곡된 모든 곡을 수집했다. 돌아가는 길에 개성을 거쳐 풍류시인들과 천마산을 오르고 박연폭포를 구경하며 마음과 안목을 넓혔다. 돌아와서는 노래와 춤이 크게 나아져 명성이 매우 자자했다. (『녹파잡기』 1권, 103)

경화세족(京華世族)과 어울리되 경화세족들에게는 영원한 이방인으로 존재하는 기생일 뿐이었다. 봉건 사회구조 속에서 소외된 슬픈 집단의 그녀들이 진정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녀들은, 그녀들의 복식과 풍속, 기예를 손가락질하며 모방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여염집 여성들이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대하면서 틈만 나면 교류를 트고자 원하는 남정네들 속에서 맘에 맞는 남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기생들은 자신의 기예를 닦기 위해 매우 현실적인 주장을 펼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서울로 직접 유학 가서 장악원의 노래를 배워 온 경패는 매우 드물다. “안목을 넓히지 못하면 결국 촌스럽게 되고 말 테니, 어떻게 한 세상을 압도 할 수 있겠어?”에서처럼 결국 압도하고 싶은 세상이란 그녀들이 상대하는 남정을 압도하겠다는 메타포인 것이다. 그리하여 녹파잡기 89면의 초염(初豔)이나 녹파잡기 86면의 난임(蘭任)이처럼, 경패(瓊貝)또한 제 명성에 어울리는 남자를 고르면 만족하는 것일까?

3. 인고의 사랑

> 패옥(佩玉)은 용모가 차가운 꽃잎 같고 담박함이 낯빛에 드러나며, 가녀린 체구에 허리는 둥글고 가늘다. 마음에 쌓은바가 홀로 우뚝하여 기생 따위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그녀의 수양어미가 편벽되고 괴팍한 데다 탐욕스럽고 모질어서 하루도 그녀를 야단치지 않는 날이 없었다. 그녀는 자기 생각을 굽혀 그 뜻을 받아들였지만 끝내 쫓겨나게 되었다. 그때 그녀는 머리장식과 화장도구를 모두 빼앗기고 홀홀단신으로 돌아갈 곳도 없었다. 일 년 남짓 지나 그녀는 집과 병풍, 휘장, 머리장식과 화장도구 일체를 다 새로 장만하게 되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간혹 그 수양어미를 헐뜯기라도 하면 그녀는 어미를 위해 끝까지 원망하는 빛을 보이지 않았다. (『녹파잡기』 1권, 112)

금전으로 남자를 평가하지 않는 패옥의 행동거지는 어디로 보나 사대부가 여성의 부덕(婦德)이다. 그토록 수모와 구박을 당하고 내쫓기면서도 탐욕스러운 수양어미를 두둔한 것은 정신수양이 드높은 선지자의 도리와 다를 바 없다. 그 고매한 후덕함과 가슴 뭉클한 따뜻함은 조선시대 보편적 여성들에게서조차 찾아보기 드문 멋진 광경이다. 조선시대 여성의 부덕이란 외형적으론 “여성의 사회적 가치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드러난 도덕적 관념의 상징이지만 사실은 색(色)의 대항개념이었으며, 여성의 성적 욕망을 제한하기위한 가부장적 매카니즘이었다.”(이숙인 2007, 52).

> 취란(翠蘭)은 피부가 차가운 옥처럼 투명하고, 손가락은 가는 파를 깎아놓은 듯 하다. 몸집은 입은 옷도 못 이길 듯 가냘프다. 성품이 담담하여 물욕이 없다. 화장도구나 진귀한 노리개 같은 것을 남들은 다투어 구하지만, 그녀만은 손을 놓고 있었다. 어떤 이가 혹시 이익으로 유혹하여도

www.kci.go.kr

그녀는 어김없이 완곡한 말로 물리치니 천성이 그런 것 같다. (『녹파잡기』 1권, 123)

취란은 집안대대로 기생노릇으로 가업과 명성을 이어온 출신이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큰머리에 화려한 비녀와 장식을 달고 초나라 궁궐의 새 화장법을 배운다. 또한 비단 버선을 신고 양귀비의 남은 제도를 본받는 많은 기생들을 보면서도 물욕을 초월한다. 한재락이 취한 기생의 미덕은 기생세계의 상식을 벗어나 경박하지 않으며, 의로움과 기개를 지닌 여성으로 보았다. 그녀들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 예술지향의 기생으로서의 남자에 대한 사랑과 책임이라는 분리될 수 없는 상관관계의 두 가지 정체성사이에서 힘들게 시이소를 탄다. 이것이 기생들의 피할 수 없는 사랑이었다. 결국 기생들의 여유와 체념은 그녀들로 하여금 수동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 진다.

4. 베푸는 사랑

차앵은 대대로 악적(樂籍·장악원 악공의 등록 원부)에 올라 있는 집안 출신이라 침착하고 사정에 밝아 남을 귀찮게 하는 일이 없다. 기방의 경박한 태도가 없고, 규방의 정숙한 여인이 음식대접을 주관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듯한 기상이 있다. 집에 있을 때는 거친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는다. 자신의 일상생활은 소박하지만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을 보면 정성을 다해 베풀기 때문에, 입은 옷을 벗어 주고 자기 먹을 밥을 밀어주더라도 어려워하는 기색이 거의 없다. (『녹파잡기』 1권, 84)

조선 후기 풍속화에서나 문학작품에 나타나는 이상적인 미인상은 기생이다. 그러나 지조 있고 품격 있는 모습으로 강조하기보다는 남성들의 성적 인연을 강조하는 장치로 폄하하여 그리는 것이 다반사다. 이렇게 사용된 모습들과는 달리 위 글의 현옥과 나섬과 차앵(次鶯)의 모습에서는 기생특유의 분대화장(粉黛化粧)은 물론 외모를 중심으로 한 시각적 이미지를 부각하기보다는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을 보면 정성을 다해 베풀고 입은 옷을 벗어 주고 자기 먹을 밥을 주더라도 어려워하는 기색이 없는 어엿한 대갓집 규수의 품격을 지닌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파격이다.

5. 걸림돌 없는 사랑

우리는 함께 대동루(大同樓)에 올랐다. 기다란 길은 숫돌처럼 빛나고 강물 빛은 비단을 펼친 듯 반짝였다. 그녀는 쪽머리에 꽂았던 은비녀를 빼들고 난간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 노랫소리가 구슬을 꿰듯 이어져 허공에 흩어지자, 모래톱의 갈매기가 놀라 날아오르고 지나가던 구름이 멈춰 섰다. 퉁소를 잘 부는 범(范)이라는 이름의 동자에게 청상세엽(淸上細葉)을 연주하라 시키고, 그녀가 다시 노래를 불러 화답했다. 이때 물시계 소리는 이미 사라지고 온갖 바람소리도 다 잠잠해졌다. 오직 성 밑의 절벽 아래 정박해 있던 외딴 배에서 머리 하얀 어부만이 밤 깊도록 잠들지 못하다가 일어나 너울너울 춤을 추었다. (『녹파잡기』 1권, 107-108)

www.kci.go.kr

위 글에서 한재락은 작중 제 2서술자가 되어 녹파잡기 68면 섬양(纖孃)에서와 같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를 표현한 것은 『녹파잡기』 만의 특색이기도 하다. 밤 깊도록 잠들지 못하다가 일어나 너울너울 춤을 춘 것이 어찌 화월(花月)과 어부뿐이겠는가. 삶의 애환을 덕지덕지 묻힌 태양과 물시계 소리는 이미 사라지고 온갖 바람소리도 다 잠잠해진 성벽 밑 물결위에서 너울너울 춤을 추는 깊고 서늘한 춤을 바라본다. 문득 저 춤이 바로 무상(無常)의 화신일 거라고 한재락은 생각한 듯싶다. 그 춤 안에는 이미 춤이 보이지 않고 춤추는 어부도, 너도, 나도 없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순간만 오롯한 이 산문집 중에 가장 멋진 산문이다.

형제들이 모두 과거에 급제하고 문장으로 이름을 드높이는 것과는 달리 한재락은 입신양명(立身揚名)에서 제외되었다. 그런 그가 시나 지으며 소신 있는 기생들과 풍류를 즐기다 그녀들의 삶과 예술에서 그나마 위안을 찾고 실재계라는 미지의 영역에서 서술자 자신보다 더욱 큰 존재를 만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순간이 아니었나 싶다.

> 평소 벽에다 옛사람이 쓴 대련을 걸어놓고 서안 위에 서화보(書畵譜)를 두어 상자에 놓고 지냈다. 만수궁향(萬壽宮香)을 사르며 연한 화장을 하고 한가롭게 앉아 붓을 잡거나 난을 치는데, 그린 꽃과 잎이 하늘하늘하여 모두 아름다웠다. (『녹파잡기』 1권, 79)

진홍(眞紅)의 실내는 고급 문사들이 원했던 문화적 분위기다. 경화세족이 누리던 최고급 문화생활로 소품서에 지향하는 한 세계를 기생들이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 남성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델이 유교적 교양과 덕을 완성한 인간형인 군자와 선비이듯이 이 시기 여성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인간형 역시 여군자(女君子)였으며 이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황수연 2003, 171).

진홍은 붓으로 노래를 대신하고 먹으로 춤을 대신하여 “벽에다 옛사람이 쓴 대련을 걸어놓고 서안 위에 서화보를 두어 상자에 놓고” 지냈다. 그리고 향을 사른 후에 연한 화장을 하고 한가롭게 글을 쓰거나 난을 치는 것을 생활의 도로 삼았다. 진홍을 보건대 이런 추구는 비단 사대부집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신분이 낮은 기생들도 예외가 아니었던 듯싶다. 서술자는 대상을 둘러싼 환경에도 세세한 관심을 표방하고 있다.

> 아아! 제 나이가 이미 스물넷이에요. 기적(妓籍)에서 벗어나 시집가서 남편의 속박을 받게 되면 어찌 제 평소대로 할 수 있겠어요? 봄가을로 아름다운 날이 되면 경치가 좋은 곳을 골라 가야금을 가지고 제 맘대로 놀고 싶은데, 이런 일은 때를 놓치기 전에 해야지요. (『녹파잡기』 1권, 57)

책 첫머리에 나오는 위의 글에서 죽엽(竹葉)이 한재락에게 독립된 여성의 소망을 전하는 것은 언젠가 기회가 오면 ‘일부종신(一夫終身)’하겠다는 자아를 향한 결의인 것이다. 여기서 대상 인물은 무엇보다 한 여인으로서의 다복한 미래를 부각시킨다. 평양 기생 죽엽에 대하여 “용모가 빼어나고 자태가 풍성하고, 얘기를 나눌 때는 호방한 선비 같고, 노래는 이 시대 첫 우두머리”라고 평한다.

www.kci.go.kr

> 손님가운데 난류(亂流)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 부드럽게 화해시켰다. 그리고 부자든 초라한 이든 한결같이 친하게 사귀어 모두의 환심을 얻었다. (중략) 선창에 있던 여러 기녀들이 곱게 단장하고 애교스러운 눈빛을 하며 아름다움을 다투었는데, 현옥만이 대충 연하게 눈썹만 그린 채 단정하게 물러나 앉아 있었다. (중략) 나는 삼십육동천(三十六洞天)[2]에 들어가서 열흘 있다가 돌아왔다. 그리고 시 잘 짓는 친구 두세 명과 그녀의 집인 오성관을 방문했다. 현옥은 서둘러 소나무 뜰을 청소하라 이르더니, 석류꽃 아래 삿자리를 깔고 가야금을 가져와 <유수곡>을 연주했다. 곡이 끝나자 술잔을 몇 순배 돌리며 운자를 나누어 시를 지었다. 현옥이 먼저 '훌륭한 선비들이 오신 뜻은 시들어 가는 꽃이 안쓰러워서라네. (중략) 그녀의 고운 솜씨가 뛰어나게 드러나는 것은 비단 노래를 부를 때만이 아니다. (『녹파잡기』 1권, 57)

배열된 순서는 나이순도 아니고, 이름난 순서도 아니다. 한재락은 자신이 직접 만난 기생들의 참모습과 특징을 조망하여 애정 어린 문장으로 전달하였다. 그의 취향은 사치스런 풍모를 배제한 문인(文人)인 듯하다. 외모를 묘사하기보다는 고매한 예술성과 고담한 풍류성을 가진 기생을 우호적으로 서술한 한재락은 아름다운 기생도 많이 묘사했다. 허나 담박하게 화장한 단정하고 순결한 분위기를 더 좋아하였는데 현옥(玄玉)이야기에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한재락은 현옥의 소문을 처음들은 지 5년이 지난 뒤에야 그녀를 만난 것이다. 역시 소문과 같이 현옥은 금전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개성적 분위기를 지녔는데 이것은 나섬(羅蟾)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길을 가다 장경문(長慶門)밖에서 우연히 그녀와 마주쳤는데, 붉은 치마와 옥색저고리를 차려입은 모습이 하늘하늘하였다. 날렵한 말이 히힝거리며 큰 소리로 울고 고운 먼지가 은연중 일어났다. 손님을 보자 안장에서 재빨리 내려서는데, 어여쁘고 젊은 모습이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 (『녹파잡기』 1권, 74)

죽향(竹香)의 유일한 현존작품인 그림「화조화훼초충첩」은 그녀가 묵죽화 뿐만 아니라 화조화(花鳥畵)에도 능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성천 기생 운초가 죽향의 묵죽첩(墨竹帖)을 홍석주에게 바치면서 신위에게 시를 써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아도 평소 묵죽화의 명인이었던 듯하다. 죽향은 죽엽의 아우로 "어여쁘고 젊은 모습이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는 것으로 보아 한재락은 자신을 이해하는 젊은 죽향을 만나 마음에 드는 지기로 여긴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서술자가 죽향을 만난 시절은 나이가 든 시기임이 은연중에 드러난다.

Ⅲ. 녹파잡기의 의의

『판교잡기』는 중국에서 널리 읽힌 애독서였다. 이 소품서가 조선에 전파되어 널리 읽힌 것은 "이상적(李尙迪)이『녹파잡기』를 읽어본 뒤에 "반지항(潘之恒. 1556-1621)의『곡중지(曲中志)』에서 전례를 끌어왔다. 조태장(曺太章. 1521~1575)의『진회사녀표(秦淮士女表)』에 기원을 두었다"고

2) 36곳의 이름난 산을 36동천이라 하는데 명승지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36'은 많은 숫자를 뜻한다.

www.kci.go.kr

평(한재락 et al. 2007, 25)." 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조선 문인들도 18-19세기에 『판교잡기(板橋雜記)』[3]를 많이 읽었다. 이 소품서는 조선의 문사들에게도 애서로 각광받으며 감동을 준책의 하나다. 그중 염정적인 문학에 남다른 취향이 있던 이옥(李鈺)이 장악원 기생들이 연습하는 이육회(二六會)를 구경하면서 그 느낌을 기록한 다음 글만 보아도 그 영향을 짐작할 수가 있다.

> 아! 내가 예전에 여담심의 『판교잡기』를 읽었는데, 천 년 뒤의 사람으로 하여금 뼛속까지 취하고 마음이 뜨거워 설의(雪衣), 금심(琴心)과 함께 미루(迷樓)위에 황홀하게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였다. 나는 그들과 더불어 같은 세상에서 살지 못한 것을 한탄한다. (『녹파잡기』 1권, 24)

모두 기생들의 재색과 우열을 품평한 글로 책 제목만 보더라도 『녹파잡기』는 한재락 역시 『판교잡기』의 경향에 깊이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한재락이 명승지에서 산책하다 만난 기생모습과 대동강 위에서 신나게 얼음을 지치는 난혜(蘭惠)의 모습은 남의 눈치 안보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수채화 빛 모습이다. 이토록 자유분방한 모습들은 기생과 여성 사이에서 이중적 정체성으로 끊임없이 분열된 헌신에 시달려야 했는데, 기생문학사의 선두에 섰던 황진이나 매창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기생으로서의 자유를 만끽하면서도 기생에 대한 기생으로서의 심리적 부채의식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권에 나오는 기방 주변의 풍속 중에 안일개(安一個도)라는 유명한 풍류객에 얽힌 일화가 있다. 당시 명기 예닐곱 명이 각기 마음에 맞는 애인을 데리고 와서 영명사(永明寺)에서 잔치를 벌리기로 했는데 그 자리에 온 사람은 안일개 한사람뿐이었다. 그리고 요즘의 연예인 매니저급의 조방꾼이야기다. 기생집에 상주하여 집사생활로 생활을 이어가는 최염아(崔豔兒)는 『녹파잡기』 2권 맨 끝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귀성대모사로 일익을 담당한다. 최염아가 마음먹고 키워주는 기생의 몸값은 다른 기생의 몸값에 비해 월등히 올랐다. 그때나 지금이나 연예인 뒤에는 연예인을 만들어 내는 인물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은 재미있는 일화이다. 또한 그는 자신이 한때 마음에 두었던 기생들의 후일담으로 고관의 첩이 된 경우, 부상(富商)의 첩이 된 경우, 늙어 주막집 술 할미로 물러난 경우들을 예로 들었다. 이러한 후일담에서 한재락 자신의 인생에 대한 아쉬움과 연민이 드러난다.

이와 같이 『녹파잡기』는 고달픈 현실 속에 굳건히 정박하고 있는 기생들의 긍정적인 특성과 기생들의 분노와 욕망과 사랑을 아우르는 수많은 목소리와 다양한 모습이 담겨 있다. 그녀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묘사하며 그 묘사 속에서 서술자 한재락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라보고 소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느새 치유 받고 있었던 것이다. 한재락은 결국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성숙한 공감대를 형성한 또 하나의 영역을 개척한 것이다.

3) 중국명나라 말기에서 청나라 초기의 사람인 여회(餘懷)가 펴낸 책이다. 명나라 말기의 남경(南京) 장판교(長板橋)의 유곽을 무대로 하여, 당시 화류항의 명기(名妓)·풍류랑 등의 일화를 비롯하여, 명나라 말기의 남경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사료(史料)이다.

www.kci.go.kr

Ⅳ. 맺는말

본 연구는 19세기의 기생 문학사가 지향하는 목적을『녹파잡기』에 나타난 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개성명문가 출신의 실의한 문사 한재락이 직접 발로 뛰어 현장에서 기록한 평양기생 문학서이다. 이『녹파잡기』는 기존 사회구조에서 소외된 기생들을 팜므파탈(femme fatale)로 규정한다는 서술자의 인식적 영역이 흥미를 끄는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직업상 빈말(empty speech)을 사용하던 기생들을, 찬말(full speech)을 사용하는 종합예능인으로 자리매김하여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서술자 인식의 새로운 변화인 것이다.

또한『녹파잡기』는 당시 기방문화와 풍속 기생들의 세계를 보여주는 유일한 소품서로서 한국 기생사를 체계화한 이능화조차도 찾아내지 못한 자료다. 예술취향을 여기(餘技)로 여겼던 작가는 그녀들에게 연민의 감정과 인간적인 면모를 느껴 진정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한층 부각시켰다. 그리고 홍등가기생들의 생생한 생활사를 서정적으로 훌륭하게 묘사한 사례로써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면모다.

서정적 개체인 개인의 계기들이 엮어내는 아비투스(habitus)를 주목하여 한재락은『녹파잡기』를 통해 기방 문학의 화려한 외양을 벗겨냈다. 그 내면에 숨어있는 비애와 한(恨)의 아름다움을 대상의 밝은 광경(sight)으로 포착하는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한재락의 성숙한 공감대를 형성한 또 하나의 영역을 개척한 당당함으로 보인다.

따라서『녹파잡기』가 남성작가의 사실적 시각(vision) 에만 국한된 것이 한계로 지적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그 사실성이라는 공간적 설정이 위대한 문학서를 낳게 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일면을 보여 주었다. 근대 기생풍속사와 조선의 기생풍속사의 중간단계에 위치한 이 자료의 중요성은 중간 결산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근대 기생문화와 조선 기생문화의 이후를 관통하는 문학서로서 한문, 역사, 국문학계를 위시한 19세기 산문연구에 어떤 중요한 통찰을 낳을지 앞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김영덕(1972).『한국여성사』. 이화여자대학출판부.

서지영 (2007). “규범과 욕망의 틈새-조선의 소설속의 섹슈얼리티.”『한국고전연구』. Vol. 15.

신위 (2006).『신위전집』. 제1집, 제2수. 태학사.

안대회 (2006). “평양기생의 인생을 묘사한 소품서 녹파잡기 연구.”『한문학보』. 제 14집.

이동연 (2003). “이세보의 기녀등장 시조를 통해 본 19세기 사대부의 풍류양상.”『한국고전연구』. Vol. 9.

www.kci.go.kr

이숙인(2007). “열녀담론의 철학적 배경.”『조선시대의 열녀담론』.
진은진(2006). “남성작가의 『춘향전』 수용과 향유방식.”『판소리연구』. Vol. 22.
한재락(2007)(이가원. 허경진 옮김).『녹파잡기』. 제 1· 2권. 김영사.
황수연(2003). “17세기 사족여성의 생활과 문화.”『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Vol. 6.

www.kci.go.kr

<Abstract>

Study on custom of Pyungyang Gisaengs who associated with the power elite - Focused on 『Noak-pah-job-gi』-

Sang-Joon Cho*

This study focuses on the purpose that a cultural history of Gisaeng in 19 century pursues, mainly via the prose expressed in 『Noak-pah-job-gi』. 『Noak-pah-job-gi』 is written by Han Jae Rock, a disappointed writer who comes of a decent family in Gaesung. He writes this cultural literary work on Pyungyang Gisaeng by himself running around the very front fields. 『Noak-pah-job-gi』 has an interesting feature which is the author's cognitive territory defining Gisaengs isolated from their existing social structure as 'femme fatale'. This is a new change in recognition of the author who regards very positively Gisaengs using empty speech as all-round entertainers using full speech.

『Noak-pah-job-gi』 is the only literary sketch showing the culture of Gibang(Gisaeng's room) and the world of customary Gisaengs in those days. It is also something that even Lee Nueng Hwa who systematized the history of Gisaeng couldn't find. The author spotlights true humanity by feeling sympathy and something humane. Its brilliant lyrical description of the vivid routines of Gisaengs in a red-light district is the first case found ever. Han Jae Rock strips the shiny appearance from the Gibang culture via 『Noak-pah-job-gi』, paying attention to a habitus which lyric individuals are mutually linking to each other. He, furthermore, has no fear to capture the beauty of sorrow and heartburning hidden inside Gibang as a bright sight. This looks like a grandness of the author opening up another field forming more mature sympathy. Therefore, 『Noak-pah-job-gi』 can, on one hand, be pointed out that it has a limit of a male writer's realistic narrow view. But, on the other hand, it can be the driver inducing a great literary work by a spatial creation of the reality. This record located between a Gisaeng's customary history in modern times and that in Chosun dynasty, is very important in terms of that it contains a meaning of medium messenger or a literary work through modern

* Lecturer, KonKuk Univ./Kyong Gi University

www.kci.go.kr

Gisaeng culture and that of post-Chosun. In addition, This work is well expected to lead us to an important insight on a study of 19C lyric literature throughout Chinese literature, history, and Korean literature.

■ **논문접수일** : 2009년 09월 18일, **논문심사일** : 2009년 11월 10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1월 20일

www.kci.go.kr